



김정록
중앙회장
2010년
송년사

새보람

SAEBORAM



2010년 지장협 활동 리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19호

2010년 12월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일시 : 2011. 1. 20(목) ~ 21(금)

◆ 장소 : 아르피나 유스호스텔(부산 해운대구 소재)



‘영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 개최

총 2천5백만원...전국 52명 장애학생 및 자녀에 장학금 전달

지난 11월 30일 열린 「영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정록 중앙회장, 영희문화재단 박태신 이사와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미영(가운데 왼쪽), 이대은(가운데 오른쪽) 학생이 함께 장학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11월 30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3층 지장협 회장실에서 「영희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이하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재단 측은 김정록 중앙회장에게 2천5백만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국 52명의 학생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김미영(만17세, 대진여자고등학교 2년), 이대은(만14세, 대림중학교 3년) 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대표로 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미영, 이대은 학생은 부모 모두 장애인이지만 학업에 열중함은 물론, 매사에 밝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어 이날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장학생 선발 자격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비롯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학생과 장애인가정 자녀 중 2010년 현재 중·고등·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며, 이날 전달식을 통해 중학생 17명과 고등

학생 18명에게 35만원, 대학생 17명에게는 75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과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신 영희문화재단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대표에게 “오늘 전달된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꿈을 키워나가자”고 말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해 사회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학금을 받은 김미영 양은 “장학금을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나보다도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쾌척한 영희문화재단은 여성복업체 ‘한섬’ 정재봉 대표의 모친인故 김영희 여사의 유산 16억원(현재 30여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으로, 지난 2005년 설립 이래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을 대

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전국 54명의 장애학생 및 장애인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태신 이사는 “영희문화재단은 영업이 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생전 ‘나눔’을 강조했던故 김영희 여사의 유지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형편이 어려운 장애 학생 및 장애가정의 학생들의 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送年辭

480만 장애인의 저력을 확인한 '2010년'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는 비록 장애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뜻 깊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장협의 가족을 비롯한 장애인후보자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들

모두 장차 우리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 투쟁'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6개월 여간 지속된 길고 긴 투쟁으로 때론 지치고 좌절한 순간도 있었지만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양경자 이사장의 사퇴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장애인 투쟁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운 난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교수와 의사 등의 소위 전문가 주도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여전했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전국의 무허가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던 것은 물론 장애아동과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들이 도처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작금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함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한 2011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

지난 2010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못 다한 아쉬움과 무거운 짐은 2011년의 떠오르는 해와 함께 물어버리고, 새로

운 각오와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지난 1년 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거두어 들인 값진 성과들은 신묘년(辛卯年) 새해의 새로운 씨앗이 될 것이며, 다가오는 2011년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영광의 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장애인공동체 일원이 됩시다.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추억의 일기장에 간직하면서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새해의 힘찬 운기가 480만 장애인 동지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124차 시·도협회장 회의'가 12월 9일 11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의 '제124차 시·도협회장 회의'가 12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15일(수) 개최된 '아·

'제124차 시·도협회장 회의'

회의 후 안상수 대표와 오찬 가져

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고, 김정록 중앙회장 및 시·도협회장들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국제세미나를 대한민국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내년 1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양일 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2011년 신년인사

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관한 사항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상정하여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난 6개월간 지속됐던 '양경자 사태'의 해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제124차 시·도협회장 회의'가 끝난 후 마련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오찬 모습.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19호 2010년 12월 2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사 동정

• 임용 박미현 중앙회 홍보협력팀장(체육정책팀장 겸직)

성명서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월 30일(화) 실시된 ‘제20차 비대위 회의’를 통해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비대위는 양경자 씨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난 6월부터 6개월여간 ‘자진사퇴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금), 양 이사장의 ‘자진사퇴’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비대위의 투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비대위의

해산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준 정부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나라당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비대위 지도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준 480만 장애인동지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비대위가 ○○○를 신임 이사장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항간의 루머에 대해, 비대위의 어느 단체도 공단 신임 이사장의 선임 문제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지난 5개월여의

투쟁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불미스런 과정을 통해 임명한 것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투쟁이었을 뿐, 우리는 장애인 고용 증진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이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우리는 양경자 이사장 개인에 대한 감정이 결코 없음을 밝히고 싶다. 지난 투쟁은 480만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찾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본의 아니

게 겪은 양 이사장의 고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공단을 떠난 이후에도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고용을 적극 돕겠다”는 양경자 이사장의 의지를 환영하며, 향후 양 이사장의 행보에 무언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2일

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대전 장애인복지의 ‘요람’이 될 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지난 11월 22일(월) 오후 4시에 ‘사무실 이전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대전협회는 지난 7월 1일 ‘제9대 윤석연 회장’의 취임 이후, 새롭게 약진하는 협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기존 서구건강체련관 3층에서 유성구 장대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대전시의회 이상태 의장, 대덕구 의회 박종서 부의장, 서구의회 구우회 의장,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 대전시의회 최진동 의원, 유성구의회 송대운 부의장, 대전척수장애인협회 황경아 회장, 대전장애인양궁협회 오세강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태복 대전지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의 참석해 현판식을 함께하며 대전지역 장애인복지의 ‘요람’으로 거듭날 대전협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대전협회는 현재 대전시의



지난 11월 22일 열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사무실 이전 개소식’.

10만여명(등록 8만여명)의 등록 장애 회원들의 자활과 자립 및 사회인식개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종합민원실, 장애인차량 및 보장구 무상점검 AS센터,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지정,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종합민원실은 연간 1,200여건의 장애인들의 답답한 사연과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해 고

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인 ‘차별 없는 일터 주식회사’가 지난 9월17일부터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윤석연 대전협회장은 현판식을 가진 후 “오늘의 새로운 도약(사무실 이전)을 통해 대전협회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情담아 고향으로”

귀성길 지원 사업...오는 27일부터 접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도내 오는 2011년 설(구정) 중증장애인의 고향방문을 돕기 위한 ‘귀성길 지원 사업-情담아 고향으로’를 실시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표창대, 이하 경기협회)는 2011 설(구정), 장애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귀성길 지원 사업-情담아 고향으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와 교통수단의 부재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리프트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해 가족 및 친지와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소유차량이 없으며, 최근 2년 이내 고향방문을 한 적이 없는 자로 오는 27일(월)부터 내년 1월 21일(금)까지 경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031) 247-7721~2>

“사랑의 김치를 나누어 드립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 1천 가구에 김치 5,000포기 전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는 11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대구시민체육관(북구 고성동)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로타리3700지구(총재 이상철)와 함께 실시한 이날의 행사는 대구지역 내 저소득중증장애인들의 월동준비를 도와주는 훈훈한 나눔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제로타리3700지구 회원 400명과 대구협회 회원 100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를 통해 총



김창환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과 국제로타리3700지구 이상철 총재와 사랑의 김치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000포기의 김치가 대구 지역 내 저소득중증장애인 가정에 전달됐다.

대구협회 김창환 회장은 행사가 끝난 후 “김장은 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계절인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 “모두들 추운 날씨에 정성껏 김장을 담가 준 로타리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분들의 따뜻한 온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얼어붙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북부장래)은 지난 12월 18일(토) 복지관 식당에서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함영승)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벽산사회봉사단’과 함께 중증장애인가정을 위한 ‘크리스마스에 불고기 잔치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말연시에 자칫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봉사단이 직접 만든 불고기 선물세트를 100여곳의 중증장애인가정에 전달하며 사회공동체로서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 이경훈 이사는 “오

“크리스마스에 불고기 잔치를!”

벽산엔지니어링과 중증장애인에 ‘불고기’ 전달



벽산사회봉사단과 복지관 직원들이 지역 내 중증장애인가정에 전달한 ‘사랑의 불고기 선물세트’를 정성껏 만들고 있다.

늘 행사를 통해서 받는 마음보다 나누는 마음이 더 따뜻함을 느꼈다”는 소감을 피력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벽산엔지니어링은 북

부장래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벽산사회봉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힘쓰는다는 경영이념을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다.

중증장애가정에 편의시설 지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중증장애인가정에 설치한 콘크리트 경사로.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가정 전동리모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천시지회는 지난달 10일(수)부터 12월 6일(월)까지 평소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하지 중증장애인가정에 전동리모콘을 제공하였고, 콘크리트 경사로(1개소)와 휠체어 진입판 경사로(5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주었다.

2004년에 파킨슨병으로 손발을 심하게 떨며 중증장애인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는 박세호(71세, 가명, 뇌병변장애 1급)씨는 평소 전등을 켜기 위해서 벽에 달린 스위치까지 기어가서 간신히 벽

에 기대어 스위치를 켜고 켜으나, 전동리모콘을 설치한 후부터는 앉아서 점등·소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김종영(46세, 가명 뇌병변 1급)씨는 집에 경사로가 되어있지 않아 병원에 갈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 들것으로 이동하였으나, 금번 경사로 설치로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게 되어 병원 진료 때는 물론 나들이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며 김천시지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한편, 박선하 지회장은 “중증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 요긴한 전동리모콘과 경사로의 설치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 생활의 편리도와 활력소를 제공함은 물론, 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랑 나눔 대행진” 행사 열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사랑 나눔 대행진’ 행사 모습.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복지관)은 지난달 19일(금) ‘사랑 나눔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며 유성구 지역의 장애인을 위로하고, 한 해 동안 타인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996년도부터 15년 동안 장애인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재란(45세, 유성구장애인주부자원봉사단)씨가 ‘제9회 대전 장애인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했고, 각 계각층의 소중한 후원으로 모은 쌀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70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함께 열렸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복지관)에서는 지난 15일(수) 오후 1시부터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10년 송년 감사 행사’를 실시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를 주제로 실시된 이날의 송년 행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천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송년 감사 행사



‘2010년 송년 감사 행사’에서 마련된 대구문화예술단의 축하공연.

대구문화예술단의 공연과 이용고객들의 장기자랑, 무료 식사,

행운권 추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



워크숍 장을 가득 메운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들



김정록 센터장이 워크숍에서「편의센터의 역할과 비전」이란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우수센터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중앙센터 흥현근 팀장이 '편의증진사 전문 자격제도 실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영남 과장이 BF인증제도에 대하여 사례위주로 강의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 12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비발디파크 다이아몬드홀에서 일곱 번째의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들은 워크숍을 통해 편의증진에 관한 미래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록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주된 이유가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시면서, 정당하고 공정한 그리고 평등한 기회가 장애인들에게 제공된다면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역할을 편의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으며 그것을 치하한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개회식이 끝난 후 마련된 「편의센터의 역할과 비전」의 특강에서 2010년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 1개소, 광역센터 16개소 그리고 기초센터 147개소가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최소 10여개소가 추가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을 쌓기 위해 분기별 1회씩 년 4회의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동시에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해 편의센터 직원은 의무적으로 중앙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 편의증진사

시험을 두 번 이상 응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편의센터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의 편의센터가 운영비 걱정없이 무장애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 편의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법정기관화에 대한 언급도 하시면서 내년에는 대토론회를 통하여 대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김정록 중앙회장의 특강과 함께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 중 문화예술시설, 교육기관 등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방법론에 대하여 중앙센터 흥현근팀장이 강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수호 주무관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 방법론 강의 및 둘째날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인증팀 박영남 과장의 BF인증제도 소개와 함께 약 3년간의 BF인증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 등 사례위주의 강의를 있었다.

중앙센터 흥현근 팀장은 강의를 통해 “농아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가 만들어졌고,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활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점역사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며 “중앙센터장님의 말씀을 받들어 편의증

진 전문 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체장애인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곳곳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세우겠다”고 세부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예년처럼 매년 지방센터의 추진사업들이 자료로 주어져 소개되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서울형 BF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서울센터가 심사단을 맡을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대구센터의 경우에는 2010년에 대구건축사협회의 대구건축비엔날레행사에서 해당 건축협회 건축사 직원 300여명에 대한 편의시설 개론교육과 BF인증제도 설명을 하였으며 그 외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에서 교육과 홍보, 실태조사, 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첫날 전체 일정을 마치고 지역 센터별로 편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분임토의를 진행하는 중에 중앙센터 장님의 격려방문을 하시어 지역에서 분발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했다. 또한 각 지방센터의 선임직원들과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편의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내지 애로점을 청취했다.

2010년 편의센터 전문가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프로그래밍과 준비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33조 5,694억원’

3개 사업 증액, 1개 삭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천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의 2011년 새해 예산이 33조 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12월 8일(수) 201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날인 9일(목) “32개 사업에서 총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에서는 총 159억원이 감액되어 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2011년 새해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급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 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급년보다 3만2천개가 늘어난 3십5만6천개로 확대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상위 30% 제외)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의 토대를 마련하며,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 도입(‘11.10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 월 258만원 → 월 450만원



2011년 새해 예산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2011년 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을 살펴보면 내년 신규로 실시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사업 예산이 잡혀있다.

내년 10월 도입할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776억 5,8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5만명이 월 평균 69만 2,000원의 급여량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은 9억 2,800만원,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 예산은 10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예산은 올해 73억 5천만원에서 약 2배 늘어난 총 153억원이다. 이 예산은 1~6급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신청자 등 27만명의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쓰인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2,887억 2,400만원 그대로 책정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해 313억원을 증액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1000원만 인상될 뿐 부가급여(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인상은 없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30개소),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1개소 1억 5천만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1개소 1억5천만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1억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한 장애수당 예산은 1,015억 1,100만원으로 올해 예산 2,017억 9,200만원에서 절반가량 삭감됐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실비입소이용료지원, 장기요양제도가 포함된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347억 7,000만원보다 196억 1,600만원 삭감돼 1,151억 5,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13억 8,600만원, 장애인의료재활

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0억 3,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예산은 9억 1,900만원으로 각각 올해 예산인 118억 8,600만원, 11억 6,000만원, 10억 2,100만원보다 삭감됐다.

여성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및 모니터링,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재활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모두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며 증액됐다.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은 28억 8,000만원에서 240명의 뇌병변 장애아동 특수제작 의자 비용인 7억 8,000만원이 추가 증액된 36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예산은 568억 3,500만원에서 9억원 증액된 577억 3,500만원,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정부안 70억 1,7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80억 1,700만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1억 2,900만원이 삭감된 41억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장애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지부를 비롯한 2011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단독 표결처리했기 때문이며, 정부안보다 3,588억 1,400만원을 증액시킨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 2조 6,168억 1,2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은 지난 15일(수)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통해 누락시킨 최소한의 기본 복지예산을 살리기 위한 추경예산을 내년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A)	2011년		정부안대비		급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C)	C-B	%	C-A	%
총 지 출	310,195	335,144	335,694	550	0.16	25,499	8.2
【예 산】	194,736	206,328	206,922	594	0.28	12,186	6.3
• 일반회계	192,169	204,373	204,952	579	0.28	12,783	6.7
• 특별회계	2,567	1,955	1,970	15	0.81	△597	△23.3
【기 금】	115,459	128,816	128,772	△44	△0.03	13,313	11.5
• 건강증진기금	17,630	17,902	17,960	58	0.32	330	1.9
• 국민연금기금	95,807	109,237	109,102	△135	△0.12	13,295	13.9
• 응급의료기금	2,022	1,677	1,710	33	1.97	△312	△15.4

〈2011년 보건복지부 새해 예산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A)	2011년		정부안대비		급년 대비	
		정부안 (B)	국회최종 (C)	C-B	%	C-A	%
• 사회복지	239,332	262,655	262,993	338	0.13	23,661	9.9
- 기초생활보장	72,865	75,168	75,168	-	-	2,303	3.2
- 아동·장애인 등	8,933	10,405	10,512	107	1.0	1,579	17.7
- 공적연금	95,811	109,241	109,106	△135	△0.1	13,295	13.9
- 보육및저출산	22,022	25,561	25,600	39	0.2	3,578	16.2
- 노인	35,166	36,986	37,306	320	0.9	2,140	6.1
- 사회복지일반	4,535	5,294	5,301	7	0.1	766	16.9
• 보 건	70,863	72,489	72,701	212	0.3	1,838	2.6
- 보건의료	17,037	15,387	15,599	212	1.4	△1,438	△8.4
- 건강보험	53,826	57,102	57,102	-	-	3,276	6.1

〈장애 관련 증·감액된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0 년	2011년			증감 내역		
		정부안	예결위	최종안			
(증액사업)			60,267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2,880	2,880	780	3,660		• 뇌병변 장애아동 특수제작 의자 240명 추가 지원(총 500명)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459	56,835	900	57,735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단체 지원	6,433	7,017	1,000	8,017		•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가반영	
(감액사업)			△2,408				
• 한국장애인개발원	4,131	4,231	△129	4,102		• BF인증 기획공모전 예산 감액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날치기 후폭풍

야당의원과 공투단, 16일 기자회견 갖고 ‘전면개정’ 촉구

새해 예산안과 동시에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장애인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수)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된 24개의 예산부수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 표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장애인계가 강력 반발하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해 본인부담금과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용(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본인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이유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 대상자



박은수(가운데) 의원, 광정숙(오른쪽) 의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실

를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최대 21만 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박은수(민주당) 의원, 광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은 지난 16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한 주역인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장애인계에 정중히 사죄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전면 개정에 즉각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위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떡을 줬는데, 그 떡 속에 대상제한, 자부담, 서비스시간 제한이라는 독을 발라놨다”며 “장애인은 결국 이 떡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출된 이후 장애인계는 즐기자게 등급제한, 자부담 폐지 등이 담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요구에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로 화답했다”며 “정부의 친 서민정책이 전시행정예 불과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모해 날치기 통과시킨 기만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후 5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등급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

의원 19명 발의... “제도적 부작용 빈번, 외면대상”

장애등급 판정심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은수(민주당) 등 19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화) 오전 ‘장애인 등급판정심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장애등급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적 권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원성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장애등급판정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보건복지부가 최대한 빨리

리 장애등급 판정심사와 관련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장애등급 판정시 ‘의학적’ 기준 외 장애인의 노동능력, 복지욕구 등 추가사항 고려 및 복지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한 2011년 3월까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인 ‘수정바젤지수 전면 개정’, 장애등급 판정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록 및 심사 시 소요 진단비 등 지원, 서류심사 이외 면접 및 방문 심사 가능, 2011년 10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에 있어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결의안은 박은수, 최영희, 주승용, 최철국, 백원우, 이낙연, 최종원, 광정숙, 김영록, 김재윤, 전현희, 양승조, 추미애, 최문순, 김춘진, 이용섭, 송민순, 정하균, 김재균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수난과 위기의 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사퇴, 수상거부... 초유의 위기



강재경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펼쳐들고 있는 가운데, 현병철 위원장이 웃으며 상장을 펼쳐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62돌(12월10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명예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지난 10일(금) 인권위의 ‘2010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된 장애인 단체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수상을 거부한 데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과 조정위원 등 7명이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추가로 집단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날 집단사퇴한 전문위원 등은 “인권위를 지키고자 인권위를 떠난다”며 “1차로 사퇴한 전문가 61명의 뒤를 이어 세계인권선언발표 62주년 기념일인 오늘 인권위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는 ‘무(無) 인권정책’을 고수하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문가가 인권위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수상을 거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권위원장 단체 부문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재경 집행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상을 수여하자 “현병철 사퇴하라”고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꺼내 펼쳐 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 상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활용, 학습 길 열려

교과부·삼성전자·SK텔레콤, 지원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삼성전자, SK텔레콤은 지난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텔레콤

장애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도 갤럭시 탭 기반 스마트러닝을 이용해 병원과 가정에서도 손쉽게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삼성전자(사장 최지성),

SK텔레콤(사장 정만원)은 지난달 29일(월) '장애학생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등 참석자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지속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양한 장애 유형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화상교육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최신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통해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에 장애학생의 원활한 수업 녹화를 위해 외장 카메라와 마이크를 탑재하는 등 장애학생을 고려한 보조기기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체결된 장애학

생 대상 스마트러닝 서비스 지원 사업은 향후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내년 5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 재택 장애학생 등 대학에 재학중인 약 3000여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갤럭시탭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학생들은 집에서도 학교에 출석한 것과 같은 학습 효과와 함께 심리적 소외감 해소 등 실질적인 학습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을 중·고등학생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 및 교양 서적을 비롯한 대학교재를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이어 2013년에는 여러 대학의 강의 영상을 담은 '영상강의은행(Bank)'을 구축해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우수 강의를 화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취득한 학점을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기 어려웠던 장애학생들에게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더욱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장·호흡기장애인도 전동보장구 지원 대상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심장·호흡기장애인들도 전동보장구 구입 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심장·호흡기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12월 15일(수)부터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은 기준금액인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다. 즉,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특히 지체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심장·호흡기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됐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으려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하면 된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및 사후관리(A/S) 문제를 해결하고,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공단&STX,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MOU' 체결 3개 지역에서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난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TX그룹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TX그룹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손잡고 장애인일자리창출에 나선다.

12월 16(목) 오후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회의실에서 STX그룹 신상진 상무, 공단 김종진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이 열렸다.

9월부터 공단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준비해 온 STX그룹은 이날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STX그룹은 계열사별

로 서울, 경남, 경북지역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진 이사장 직무대행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 운영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공단의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STX 신상진 상무는 "기업이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나눔과 상생'의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자회사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성폭력, 사회가 가해자 도와

사법기관 ‘장애 이해교육’ 실시, 처벌 강화 시급 성폭력지원기관에 장애전문가 배치, 지원 필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운 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왜곡된 성 인식, 성폭력처벌특별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해석,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양형문제, 성폭력 예방 교육 부족과 왜곡된 인터넷 문화,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을 들었다.

민 소장은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전수 실태조사와 성폭력 관련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특히 전 국민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들은 진화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항거불능 용어 개정 문제 이외에도 지적장애여성에게 일관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종종 상대의 질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비장애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진술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염 변호사는 “법 규정 이기보다는 사건을 대하는 법관 개인의 인식 문제도 있다”며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라매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정은주 경위는 “실제 수사기관도 장애에 대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이해가 부족하다”고 염 변호사의 말에 동의한 뒤 “초기에 성폭력지원기관에 장애전문가가 있어 진술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한다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질의응답에 참여한 청각장애 여성회 권오숙 부회장은 “성폭

력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제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을 참관하려고 했으나 수화통역이 재판에 방해가 된다고 참관하지 못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모금회, 직원 비리 파문으로 기부금 대폭 감소 이동건 신임회장 취임…“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관계자들의 비리로 인해 연말 기부금이 대폭 감소해 모금회 지원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영세 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월) 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모금 목표

액 2242억 가운데 이날까지 모인 기부금은 77억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559억5200만원이 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13.8%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2212억원 모금 목표에 2242억원을 모금해 목표를 초과



기부금을 유혹비로 유용하는 등의 직원 비리가 밝혀져 파문이 된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부들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달성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모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금회는 지난 15일(수) 이사회를 열고 이동건(72) 전 국제로타리 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임,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 임

기 동안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금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모금회 쇄신 방안으로 ‘시민감시위원회’ 구성을 내놓았다. 또한 이 회장은 “모금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모금과 배분내역을 모두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국제 수준의 투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진행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6만원으로 책정됐다. 의무 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주는 1명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이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내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

1인당 월 56만원…지난해 대비 5.7% ↑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인당 장애인 고용 부담 기초액은 53만원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5.7% 인상한

사격 김임연 선수, ‘APC선수대표’에 당선

67.3%의 압도적 지지…4년간 선수 대변



APC(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선수대표에 당선된 한국 장애인사격의 대들보 김임연.

한국 장애인사격의 대들보 김임연이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이하 APC) 선수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PC)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총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지난 16일(목)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에서 치러졌다.

장애인아시아게임 참가

선수들의 투표결과 김임연은 67.3%의 지지를 얻어

APC 선수대표로 선출됐

다. 앞으로 4년간 APC이사회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김임연은 선거공약을 통해 “각국의 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에 선수위원회를 설립하고 각국의 선수대표가 장애인스포츠 부흥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말리니 라자세가란(말레이시아, Malini Rajasegaran) APC사무총장은 “김임연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선수대표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임연은 1992년 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장애인올림픽까지 올림픽에서만 통산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여기에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위원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New-Decade 준비



김정록 중앙회장이 참석자들에게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200여명의 세미나 참석자들이 이번 세미나의 슬로건인 "Make The Right Real(장애인권리 실천하자!)"를 함께 외치고 있다.



아키야마 아이코(Akiyama Aiko) 유엔 에스캅(ESCAP) 사회개발국 담당관이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의미와 New-Decade 진행경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최종평가를 위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정부 간 고위급회의」를 2012년 한국에 유치했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2022년)'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태 장애인 10년’은 아·태지역의 고위급 정부 관료들이 모여 10년 동안 어떤 내용들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인가를 계획하며, 이는 480만 한국장애인들은 물론 나아가 아·태지역 3억 이상의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종료 시점에 이른 지금, 이와 같은 중요한 회의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아·태 장애인 10년'은 일부 전문가 집단과 정부주도형의 선언적 행동으로만 일관돼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은 지난 5월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지장협을 비롯해 한국DPI, 한국작은키

모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화상장애인협회(준), 장애인여성네트워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10여개의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아·태 장애인 10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그리고 지장협과 연대회의는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에서「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재)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인 이번 세미나는 오는 2012년으로 마무리되는 '제2차 아·태(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아키야마 아이코(Akiyama Aiko) 유엔 에스캅(ESCAP) 사회개발국 담당관, 쇼지 나카니시(Shoji Nakanishi) 일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JIL) 대표, 태국의 사와락 통쿠아이(Sawalak Thongkuay) APDPI(Asia-Pacific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임원 등이 참가해,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의미와 New-Decade 진행경과',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 '아·태 장애인 New-Decade의 전략과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場)이 되었다.

먼저 UN 대표와 장애인당사자단체 관계자들은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에서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참여가 미미했다는 문제의식과 New-Decade(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에는 더욱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성과에는 다소 이견을 보였는데, 아키야마 아이코(Akiyama Aiko) 유엔 에스캅(ESCAP) 사회개발국 담당관은 "아·태 지역의 23개 정부가 자국의 헌법 내에 장애와 관련된 조항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53개 국가 중 32개국이 권리협약에 서명을 한 성과가 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은 아·태 장애인 10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아키야마 아이코(Akiyama Aiko)의 강연이 끝난 후 국내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쇼지 나카니시(Shoji Nakanishi, 왼쪽) 일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JIL) 대표, 사와락 통쿠아이(Sawalak Thongkuay, 가운데) APDPI(Asia-Pacific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임원,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세라 한국작은키모임 대표(오른쪽).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성과가 미진하고 목표가 수량화, 계량화되어 있지 못하여 과제의 책임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줄어들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동정적 관점은 여전히 잔존한다"며 "선언적인 것은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는 상당히 미약한 계획"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지난 제1, 2차 아·태 장애인 10년 기간 동안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반드시 유형별, 성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자조단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차(New Decade)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아태지역의 이행계획으로서 아태지역의 국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국가·Sub-Region별 행동계획의 채택 및 보고,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DPO(Disabled People's Organization)간 민관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공동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단체 연대회의(AP-DPO)의 '제안서'가 발표돼 장애계의 주목을 끌었다.

연대회의는 제안서를 통해 "오는 2012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UN ESCAP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장애 문제를 전문가주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사자 참여'와 '당사자 주권'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념촬영



국제세미나가 끝난 16일에는 「UN ESCAP과 장애인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단체 연대회의 제안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은 오는 2012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UN ESCAP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당사자조직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장애인 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과 'NEW-DECADE'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혀 갈 것이다.

세계장애인 10년, 아·태장애인 10년에 이어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촉

구시켰고, 각국 정부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2차 아·태 10년을 연장한 5년간의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크게 공헌한 아·태 지역 장애인단체의 활약은 자부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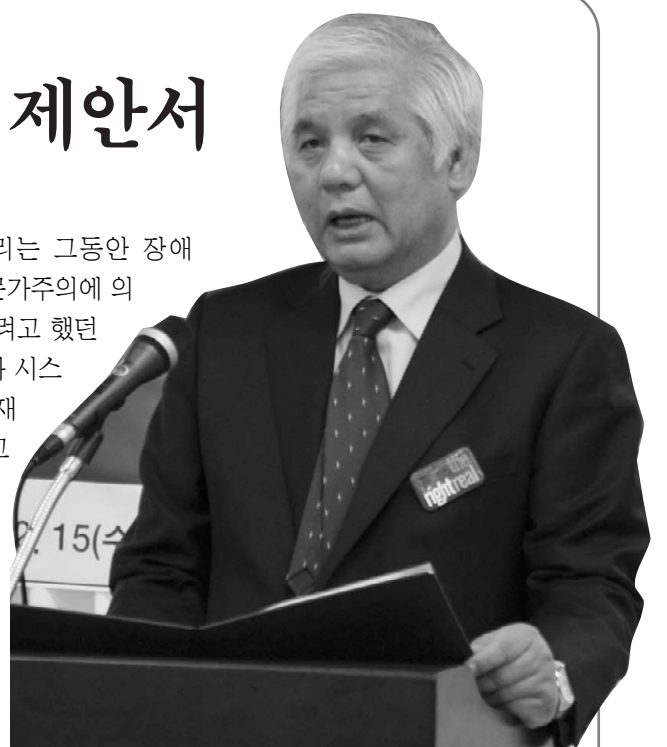
그러나 '완전한 참여와 평등'과 '아·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벽 없는, 그리고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를 향한 '새천년 행동계획'은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했으며 모든 장애인단체의 총체적 결속과 연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

획을 마련하는 데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했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못한 채 각국의 홍보와 노력이 부족하여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정부주도의 선언적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2012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UN ESCAP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또한 '아·태장애인 뉴-디케이드'에 장애인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당사자조직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단체 연대회의』의 결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장애 문제를 전문가주의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당사자 참여'와 '당사자 주권'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한다.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2010년 12월 15일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 참가자 일동

2010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걸어온 길

백호(白虎)의 기운으로 출발한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장애인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사태 등의 이슈로 점철된 올해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게도 숨 가쁜 한 해였다. 지장협은 올 한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장애인예술제 등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공공체육시설·교육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6개월여간의 긴 투쟁 끝에 ‘양경자 사태’를 해결하며 장애계 투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장협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뜻 깊은 한 해를 만들었다. 본지는 다가오는 2011년 지장협의 웅혼(雄渾)한 기상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기를 기원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편집자 주〉

<1월>

■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개최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실시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이 끝난 후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지체장애인지도자들이 ‘장애인 복지증진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일제히 날리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보고, 몸부림을 쳐봐도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없는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즉 ‘매니페스토’에서 찾고자 한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2010년 지장협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인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이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아닌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480만 장애인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하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 및 친(親)장애인사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애인 복지발전’ 및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과 ‘결의문 낭독’ 및 ‘희망의 종이비행기(장애인 정책의제) 날리기’ 등의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2월>

■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 개최

신년인사에서 밝힌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해 지장협은 2월 9일(화) 영등포아트홀에서 ‘2010년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50여명의 지체장애인지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선거운동 관련 법규 및 사

례, 입후보 준비과정, 효과적인 선거캠페인 기법 등의 교육을 마련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마를 준비했던 지체장애인지도자들의 ‘지방의회 입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월>

■ 칠레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구호성금을 전달한 김정록 중앙회장이 데니스 빅스 칠레 공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지진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칠레 국민을 위해 3월 16일(화) 주한 칠레대사관을 찾아 1천9백여만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구호성금은 지장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협회, 232개 시·군·구 지회 및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40만 회원들이 칠레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빠른 재건의 희망의 불씨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것이다.

성금을 전달받은 데니스 빅스 칠레 공사는 “평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었던 장애인이 얼굴도 모르는 타국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흔쾌히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놀라워하며 “오늘은 기존에 내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선입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4월>

■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개최

6.2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열린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이 본격적으로 개최된 달이었다.

4월 2일(금) 전남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충북, 광주, 강원 등 전국에서 발대식이 열렸고, 김정록 중앙회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인당사자 입후보자 및 회원들을 격려했다.

<5월>

■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5월 2일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모습.

국제공인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를 5월 2일(일) 오전 8시 서울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대회는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5km(비경쟁 포함) 3종목에 출전한 2,000여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전체 15,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고,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가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풀코스(42.195km) 종목의 우승을 차지했다.

<6월>

■ ‘양경자 사태’ 투쟁 돌입



6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 대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장애감수성도 없는 양경자란 인물을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지장협은 단호히 칼을 빼들었다.

지장협은 국내 50여개 장애단체와 연대해 ‘장애인고

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갔다.

특히 6월 14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이룸센터 앞에서 1만5천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 참가한 한 장애음악인의 연주 모습.

장애인예술인의 등용문(登龍門), 국내 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제2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6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강당에서 개최했다.

영예의 전체대상은 성내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배성연(15세, 발달2급) 군이 차지했다. 배 군은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유명한 쇼팽(Chopin)의 ‘에튀드 작품10의 제12번(Etudes Op.10 No.12)’을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냈다는 정태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의 평가를 받으며 영예의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7월>

■ 장애인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결의대회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자들은 7월 11일(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2010년 장애인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정책결의 대회」에 참석한 ‘공단(양경자) 사태’의 해결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

안상수, 홍준표, 정두언,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장애계 최대 이슈인 공단(양경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양경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고, 이날 안 대표의 약속은 11월 현실로 이뤄지게 된다.

<8월>



지체장애이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한 농촌진흥청의 청사 모습.

■ 중앙 행정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완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체장애이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40개 중앙 행정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8월 완료했다.

<9월>

■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9월 16일(목) 서울시청 열린광장에서 열린 ‘2010 장애인문화예술국민대축제’의 공동주최기관인 지장협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16일)’,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장애인들을 위한 ‘스타장예(藝인)콘테스트(17일)’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및 솔로탈출 119 개최



김정록 중앙회장이 대회 최고상인 ‘장한 배우자상’에 선정된 안순희 씨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속에서도 소중한 사랑을 지켜온 중증장애인배우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10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이틀간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개최했다.

대회의 최고상인 ‘장한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순희(여, 44) 씨가 수상했다.

한편 10월 30일(토)에는 결혼을 희망하는 성년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미팅 프로그램인 『솔로탈출119』를 개최했다.

<11월>

■ 한국지체장애인협회&KT MOU 체결

지장협과 KT(회장 이석재)는 11월 1일 KT 올레캠퍼



MOU 체결 뒤 기념촬영

스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장협&KT의 지속성장 및 발전을 위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제1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개최' 개최



목동주경기장을 꽉 채운 지장협의 5,000여 회원들

‘2010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제1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11월 9일(화) 오전 11시 목동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진단하며 “380만 지체장애인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운 목표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 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퇴

6개월여간 장애계의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이(오른쪽 상단) 11월 18일 결국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한국장애투쟁의 역사’를 다시 쓴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480만 장애인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 영희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

전국 장애학생 및 장애가정 학생들이 주위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한 ‘영희재단과 함께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11월 30일 마련해 전국 52명의 학생에게 총2천5백여만원의 장학금 전달했다.

<12월>

■ 아·태 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오는 2012년으로 종료되는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계획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12월 15일(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권익위, 서민·취약계층 조세지원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CI.

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 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장애인 일시적 '1인 2차량' 소유기간 연장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3일(월)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권고안에는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 국적 거주자도 외국인 등록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통해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과 동일세대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에는 또한 폐

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인천, 'BF 생활환경 인증제' 본격 도입



Barrier Free의 마인드로 설계된 도시 모습.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이하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이하 BF 인증)'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인증

받는 제도이다.

인천시에서는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장애물 따로, 편의시설 따로 설치하는 비합리성과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설치'에서 '장애물 없애기'로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 만들기로의 정책전환을 표명하는 것으로 지

속적으로 도시환경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건축물 중에서 시공 초기중인 시설물을 파악 중에 있으며, 현재 예비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중 건축 초기에 있는 강화공공도서관 등에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인천시의 대표적 건축물이 될 AG경기장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으로의 BF 인증확대를 위하여 인천시의 대형병원,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대표 건설회사 등과의 민·관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신축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에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

개발원, 복지일자리 직무매뉴얼 무료 배포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홍)은 복지일자리사업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직무매뉴얼 및 활용서'를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우편물 분류, 관공서청소도우미, 보육도우미의 4개 직무에 대한 기관특성, 사업체개발, 직무분석, 과제분석, 직무지도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이 제시되어 있다.

매뉴얼 1권은 현장에서 복지일자리 및 해당직무에 대한 현장훈련, 취업 등을 위해 담당자가 활용하여 사업운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고, 4권으로 구성된 각 직무별 직무활용서는 참여자가 해당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무료 배포하고 있는 '복지일자리 직무매뉴얼 및 활용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직무의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고 보다 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이 필요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매뉴얼담당자, 02-3433-0669)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 은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12월까지...상태 따라 최대 230시간

서울 은평구청이 12월까지 자체예산을 투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시비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만 6세이상~65세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이 더 많은 서

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태에 따라 월 40~230시간의 서비스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희망자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351-3981),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374-

0818), 은평지역자활센터(☎307-1186) 등 3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강원 홍천군이 12월 1일(수)부터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집까지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홍천군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1·2급의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홀몸노인 4천 729명이며, 이 제도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발급 수수료도 감면받고 있다.

군청 허가 민원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서류가 배달된다.

경기도 용인, 장애인 특수학교 3월 개교

현재 공적률 80%, 장애학생 고려해 설계

내년 3월 개교경기도 용인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투자한 장애인 특수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용인시와 학교법인 강남학원은 지난 5일(일) 용인 기흥구 상하동 강남대학교 캠퍼스 내 1만 1천240㎡에 연면적 1만5천99㎡,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용인특수학교(가칭)가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경기도 75억원, 용인시 110억원, 강남대가 10억원(부지 추가 제공)의 재원으로 건립 중이며, 강남대 재단인 강남학원이 설립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적률이 80%를 넘어섰다.

아울러 개교 준비에 필요한 교직원 10명 정도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유치원 1개반과 초등부 12개반, 중학부 6개반, 고등부 6개반 등 학년별 2개반씩 전체 정원 154명으로 운영된다. 턱이 없는 출입문에 복도에 자연채광이 되도록 학교 건축물을 설계해 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또한 사각형 폐쇄공간을 싫어하는 정신지체아의 특성을 고려



내년 3월 문을 여는 용인의 장애인 특수학교 조감도.

해 모든 교실을 벌집형, 원형, 하트형, 육각형 등의 구조로 만들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장애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시흥, ‘Wheel in Life’ 실시

중증장애인 위해 보장구 무료 수리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 2월 27일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사업

‘Wheel in Life’를 실시한다. 시흥시 거주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수리비용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별도의 본인부담금(수급자 및 차상위 50%, 일반계층 100%)을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06-8252)나 이메일(kgshil@hanmail.net), 홈페이지(www.kgshil.net)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비서류: 신청서1부(홈페이지 참조), 복지카드 사본1부,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1부(해당자 한함)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에 자동차 정비요금 15% 할인

경기도 파주

경기도 파주시는 장애인에게 자동차 정비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월)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약을 맺은 파주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장애인에게 자동차 정비요금의 15%를 할인해주는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웃’ 사업을 실시한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인 ‘함께사는 세상’에 서비스

를 신청한 뒤 IC카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자동차정비업체를 찾으면 된다.

파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274곳 가운데 140여곳이 회원으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市)는 장애인이 쉽게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파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1만6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비 24억원



전라남도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관람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한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5배 늘어난 24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0일(금) 밝혔다.

전라남도내 문화바우처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0만7천여명과 차상위계층 6만2천여명 등 총 16만9천여명으로 올해까지는 전체 대상자의 8.2%만이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7배 이

올해보다 5배 증액

상 늘어난 28.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도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혜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개인별로 문화카드 발행 등 보다 다양한 회원 확보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화바우처사업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홈페이지(www.cvoucher.kr)에 회원 가입 후 주어지는 5천포인트 한도 내에서 관람하고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예매하면 된다. 5천포인트는 현금으로 5만원

에 해당하나 공연단체의 50% 할인으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정회원 중 장애인, 노인, 아동은 동반인 1명이 함께 관람이 가능하며 30명 이상의 단체가 1시간 이상 떨어진 공연장에서 관람할 경우 차량과 식사 등 편의도 제공된다.

양복원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문화바우처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작지만 강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061-286-5420〉

경북 구미, 구미장애인체육관 착공

2012년 완공...편의시설 완비

경북 구미시는 지난 11월 18일(목) 형곡동 구미장애인복지회관 인근에서 장애인체육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2012년 5월까지 1만9천여㎡ 부지에 8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구미장애인체육관에는 1층에 다목적체육관과 무대, 2층에 관람석, 지하 1층에 식당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구미시는 장애인체육관인 만큼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

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를 확보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충분히 갖춰놓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구미장애인체육관이 완공되면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연계돼 구미시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복합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미시 박규태씨는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상담 Q&A



-기사제공-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장애인당사자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289-4320

“장애등급 조정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첫 장애 판정은 6급으로 받았고, 15년 전에 장애조정 신청해서 지금현재 4급입니다. 지금 다시 장애조정 신청하면 3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약7센티 짧고, 나이는 42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다리길이 차이로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경우 현재 장

애평정 지침 상 6급과 5급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장애상태는 지체장애 6급입니다. 현재 등급 재조정 신청을 하시면 상향조정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담당의사가 판정 후 다시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최종판정을 하는데 지침으로 봐서는 3급 판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제도가 있나요?”

Q) 이웃에 계신 지인(지체장애인)의 일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가족이 장사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계획 중이신데, 차량구입자금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주변에 들은 말로는 장애등급을 받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차량구입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또 사실이라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우리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차량구입자금대출’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1년에 2회에 한해 신청을 받고

많은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3% 이자에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차량구입자금대출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0cc 이상의 차량 구입시 혜택은?”

Q)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장애인입니다. 현재 여러 모델을 두고 고심중인데요, 2000cc 이상의 차량은 구입 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해 세금 감면혜택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장애계에 장애연금과 활동지원법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계속 정부에 투쟁중에 장애계 의견이 아닌 정부안이 반영된 관련 법들이 통과되어 현재 장애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유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세진	중랑구 망우3동	30-50세	무관	가방제조생산보조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2	경비직	국제안전시스템	마포구 공덕동	68세이하	무관	아파트경비	"1,20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3	생산직	(주)씨피엘	안산 단원 화정	20-60세	무관	생산직	"86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4	기술캐드직	(주)아이팩 ENG	도봉구 번동4거리	35세이하	남	기술캐드	면접후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5	경비직	(주)승학	인천 부평 갈산	65세이하	남	아파트경비	"1,0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6	택배직	파랑발	서울시 서대문구	60세이하	무관	지하철 택배직	"86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7	사무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0대이하	여	안내데스크	"86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8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45세이하	무관	전자제품조립	"86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9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이하	남	자습/2교대	"1,200,000"	4대보험	2289-4321-2	손가람
10	청소직	(주)유전실업	"서울, 수도권"	60세전후	여	은행 청소원	"550,000"	4대보험	2289-4321-2	한은희

2010년 새보람 독자만족도 설문조사

SAEBORAM



국내 유일의 무료장애인신문인 **새보람**은 급변하는 장애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생생한 독자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제작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조사 기간 : 2010년 12월 27일(월) ~ 2011년 1월 5일(수)

■ 조사 방법 : 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 조사 내용 : 새보람 인지 여부, 만족도, 개선방향

■ 경 품 : 문화상품권, 천연비누 등

■ 추 침 : 2010년 1월 10일(월) 예정

※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 02)2289-4381 / FAX) 02-796-4281

E-Mail) hambaknun30@nate.com

since 1986



사단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12월 12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아시아게임의 개막식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조직위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인해 금메달을 박탈당한 한국의 홍석만 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0회 장애인아시아게임, 광저우서 개막...7일간 열전

한국, 15일 5위...홍석만 선수 억울한 금메달 박탈

‘제10회 장애인아시아게임’이 지난 12월 12일(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환호하고, 함께하고, 승리한다(We Cheer, We Share, We Win)’를 슬로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아시아게임’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는 대회이다.

18개 종목 19개 이벤트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의 전체 출전 선수단 규모는 아시아 45개국 5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은 선수 198명과 임원 102명까지 총 300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파견했다.

4년 전, 종합3위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 태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 35,

은 24, 동메달 56개 등 총 11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2~3위에 오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월 15일 현재, 메달 사냥에 나선 한국은 금메달 5개를 추가하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첫 금메달은 수영 남자 200m 계주에서 나왔다. 민병언(25)과 이권식(35), 권현(19), 김경현(25)은 지난 13일(월) 광저우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남자 200m 계주 경기에서 태국 선수들과의 접전 끝에 2분43초2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번째 메달은 수영에 이어 열린 사이클 경기에서 나왔는데, 혼성 탠덤사이클 4km 개인추발 결승에서 김종규(26)와 파일럿 송종훈(18)은 2위 문정국(44)과 조재민(22)을 한 바퀴 넘게 추월

하며 정상에 올랐다.

한국의 메달 레이스는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한국 휠체어육상의 간판 홍석만(35.제주도 장애인육상연맹)이 14일(화)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휠체어 육상 800m 결승에서 1분42초16만에 골인해 경쟁자인 히로미치 준(일본)을 5초 이상 따돌리고 한국 육상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볼링의 김정훈은 텐허 볼링장에서 열린 TPB1(시각) 개인전 결승에서 957점(에버리지 159.5점)으로 아오마쓰 도시아키(일본.832점, 에버리지 138.7점)를 압도적인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밖에 ‘명사수’ 박영준도 아오티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40m 자유소총 3자세 결선에서 합계 1천246.8점을 쏘 귀당차오(중

국)를 1.1점 차로 물리치고 금빛 총성을 올렸다. 특히 박영준은 예선에서 1천150점을 기록해 귀당차오에 6점 차로 뒤졌지만 결선에서 96.8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귀당차오를 따돌리며 금메달을 차지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육상종목에서 우승한 홍석만 선수가 조직위의 황당한 주장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게임 조직위는 15일(수) 홍석만 선수의

장애등급이 실제보다 낮게 매겨졌다는 일본의 소청을 받아들여 T53으로 출전했던 홍석만은 장애 정도가 한 단계 더한 T54로 조정했다. 결국 홍석만이 T53등급으로 출전했던 800m 경기의 금메달은 사라져버렸고 5초차 2위였던 일본의 히로미치 준이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홍석만 선수의 메달 박탈에 대해 육상종목 담당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조직위의 결정이 재고되지 않을 경우 육상종목 모든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다.

‘시각장애인 사진전’ 열려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작품 전시

서울시가 후원하고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서울 ‘시각장애인 사진전’이 지난 11월 22일(월) 28일(일)까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아마추어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10명이 직접 찍은 사진 작품 60여점과 사진 촬영 활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 사진집이 공개됐다.

사진전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김경식씨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속에서 느낌으로 찍는다. 멘토 친구가 찍은 사진을 설명해주고 내 느낌과 맞았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전했다.

총기획자인 양종훈 상명대



아마추어 시각장애인 신세빈 작가의 작품명 동대문. ©서울시

영상·미디어연구소장은 “24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사진이라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존함을 확인하는 장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서울시 25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 사진교실-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서울’의 최종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시상식 열려

신성남(시각장애1급)·박양수(청각장애2급)·김영철(지체장애1급)씨가 각각 ‘제20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대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홍)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에서 시상식을 갖고, 총 114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신성남 씨는 시 ‘아버지의 등뼈’로 문학상, 박양수 씨는 한국화 ‘모정’으로 미술대전 1부, 김영철 씨는 서예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으로 미술대전 2부 대상을 각각 차지했다.

‘아버지의 등뼈’는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작성됐다. ‘아버지의 등뼈’를 바퀴에 빗대어 형상화 시킨 수작(秀作)이며 시의 세 요소인 회화적, 논리적, 운율적 요소가 잘 내포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수리의 지극한 모성애를 표현한 ‘모정’은 “한국화의 정서와 풍취를 매우 잘 표현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작가의 예술 활동과 삶의 희망을 진솔하게 표현한 철학이 담긴 작품이며, 고체와 궁체흘림의 점과 획, 장법 등이 훌륭하다”는 평을 얻었다.

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차강석(뇌병변·언어장애1급)씨의 ‘징검다리’와 홍양진(지체장애2급)

씨의 수필 ‘팡돌’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수상했다.

미술대전 시상식에서는 김철민(청각장애2급)씨의 공예작품 ‘라오론2010’, 고선환(지체장애3급)씨의 서각작품 ‘즐거운 웃음’, 김대웅(청각장애5급)씨의 서양화 작품 ‘눈물’이 부분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95명이 입상했다.

이용홍 원장은 “평가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 작품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와 미술의 발전에 있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사진작가 권영식의 '즐거운 디카세상'

"앵글의 변화 그리고 테크닉"



사진 1, 2) G20 성공개최를 위한 '청계천 등축제'

자! 또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화창하고 움직이기 좋은 계절은 아니란 말이죠!

겨울은 사진인들이 가장 먼저 위축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겨울을 가장 기다리는 계절로 꼽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맑고 청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간 촬영도 겨울에 많이 다니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번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조용한 촬영이 힘들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엔 추위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춥다고 멈추지 말고 남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늘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되면 쉽게 지치고 힘만 들게 됩니다. 따라서 촬영지를 결정하고 나면 촬영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진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남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는 그

날 무슨 행사를 하는지 등을 인지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가능하면 프로사진가겠지요? 따라서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앵글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을 마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파인더를 보는 것입니다. 늘 눈 높이에서 먼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로우앵글, 위에서 내려다 보는 하이앵글 등 앵글의 변화만으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드라마틱하고 힘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진 1〉, 〈사진 2〉는 지난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청계천 일대에서 펼쳐진 '등 축제' 중 일부입니다.

G20 성공개최를 위한 행사로 약 230만 명이 다녀 갔다고 하니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각대를 펼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어느 각도로 카메라를 돌려도 사람, 사람들... 이럴 때는 앵글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정적인 사진

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앵글을 낮추고 청계천의 랜드마크인 동아일보 사옥을 기준으로 주제 또는 부제가 되는 요소들을 넣어 줌으로써 장소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담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 3〉 역시 엄청난 인파로 북적였던 경북궁 야간개장 때 촬영한 장면입니다.

촬영하고 보니 엽서사진이 되고 말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빠르게 몇 장 촬영 한 사진치고는 엽서사진이라고 해도 오래 간직할 만한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앵글은 가장 보편적인 아이앵글이지만 White Balance와 노출을 빠르게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경험이 많다면 뇌출계(?)를 이용하면 되지만 경험이 없다면 '단계별 노출'을 이용하여 적정 노출을 얻고 자동부터 화이트밸런스를 변경하면서 촬영 한다면 정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값을 기억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면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앵글의 변화로



사진 3) 경북궁 야간개장



사진 4) 경북궁 야간개장 때 촬영한 '별의 궤적'

정리된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며 조금 더 노력해서 테크닉이 가미된 진보된 사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사진 4〉는 615년만의 경북궁 야간개장을 의인화한 사진을 만들고 싶어 100장 촬영 후 합성하여 별의 궤적을 이용한 시간의

흐름을 담아 보았습니다. 별궤적 촬영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 호를 기약해봅니다.

신묘년 한 해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권영식 (edstudio@edstudio.co.kr)

스튜디오 포토매직 대표 역임
노필름 대표
이동스튜디오 대표
13~19회 서울국제촬영제 마라톤대회 공식 촬영
www.EDstudio.co.kr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성호(53세, 남) 씨의 수기로, 장애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재할”

박성호 (경기도 동두천시, 아름다운 배우자상)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집은 완전히 기울어졌다. 아버지 병원에 그리고 새어머니는 감옥에 가면서 어린 동생들은 할머니께서 돌보고 하니 내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난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서게 됐다.

교회 청년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시설로 가고 싶으니 시설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얼마 지나 연락이 왔고 난 찬바람이 세차게 불던 1982년 12월 겨울 21년을 생활했던 정든 집을 나왔다.

난 교회 청년하고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맨 처음 삼육 재활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 나이가 너무 많고 장애가 심해서 받지를 못한다고 했고, 다른 재활원은 큰돈을 내야했다.

그 때 당시 우리 집 형편이 큰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에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하여 물었더니 길거리에 버리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난 청년한테 부탁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 해서 파출소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 청년은 나를 들쳐 업고 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 경찰들은 이것저것 물었지만 난 말을 못하는 정신지체장애인처럼 고개를 저으며 연극을 했다.

그랬더니 경찰들은 보호자도 없이 쓰레기처럼 길에 버려졌으며 혀를 끌끌 차더니 차에 태우고 한참을 어디론가 달려갔다. 차가 드디어 멈추었다. 밖을 내다보니 너무 으스스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영국군 포로수용소처럼 담장은 엄청 높고 가시가 돋친 철조망이 담장위에 빙 둘러쳐져 있었다. 경찰은 관계자와 말 몇 마디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 한참 있으니 건장한 남자 몇 사람이 와서 나를 마치 잡은 돼지 들고 가듯 들고 갔다.

나는 1982년 12월 서울 구산동 마리아 갱생원 6동에 입소가 되었다. 방에는 온갖 소변냄새와 병자들의 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좁은 방에는 20명씩이나 생활하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다. 고된 하루를 정리하고 첫 날 밤이 왔다. 잠을 자야 하는

데 잠이 오질 않았다. 세상에 나와 칼잡이란 것을 자야했다. 옥수수처럼 촘촘히 끼어 자야 했고 이부자리는 오줌과 변에 찌든 악취가 나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 사람들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난 그곳에서 견디기 힘들었다.

아주 심한 매를 맞고 죽는 사람도 많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열심히 했다. 난 시간표를 짜놓고 15명 정도 되는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방 운영을 했다. 우리 방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졌다. 나에게 손발 역할을 해주는 체격 건장한 지적장애인 남자를 붙여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원장은 방장들을 모아놓고 술과 고기를 주고



10월 18일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성호씨(오른쪽).

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야 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낸지 얼마나 되었을까? 내 무릎은 굽아서 부어올랐고, 모든 희망을 잃어갔지만 천우신조(天佑神助)로 난 갱생원에서 한국 자립회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국 자립회에 도착하니 식당에는 열명쯤 돼 보이는 정신지체인들이 저녁식사를 하다가 나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부원장은 굽은 무릎을 보더니 병원에 가자고 했다. 병원에서 무릎을 따니 무릎에서 고름이 분수처럼 치솟았다. 치료를 받은 후 방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갔다.

자립회에 입소한 후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생활을 열심히 하던 끝에 목사님으로부터 방장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잘해낼 수

수고 많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조금 있으면 여자원생도 들어온다고 그중에 맞는 사람 골라 결혼도 시켜준다고 했다. 희망이 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살았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 자립회에도 여자원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 그때만 해도 일에 미쳐있는 상태였기에 여자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 여자들이 10명 정도 들어왔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명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이름은 ‘이은숙’, 그녀는 집에서만 생활하던 터라 재활원 모든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게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츰 원 생활에 익숙해져 갔고, 은숙씨는 방식구들 빨래며 옷 관리도 방 청소며 모든 일을 도맡아했다. 은숙씨는 자기방 빨래를 나한테 많이 부탁했다. 우리세탁장에서 여자 빨래도 도맡아 했다.

우린 만나서 대화의 시간이 늘어 갔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러나 우린 서로의 장애와 환경이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커다란 힘겨운 관문이였다. 우리의 교제는 생활하고 있는 시설측과 가족들은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장애의 환경적인 힘든 부분까지도 초월할 만큼 깊었기에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먼저 작은 그룹홈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 인천의 모 복지 그룹홈에 입소했다.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옮겼다. 거기는 일반 주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오래된 낡은 주택인데다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모기 바퀴 벌레가 들끓는 그런 시설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앞으로 다가 올 재할의 꿈이 있기에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아 들였다. 우린 밥만 먹으면 엘리베이터 타는 적응훈련과 전철 타는 연습을 하며,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거리의 사람들과 부딪치며 빠르게 적응이 되어갔다. 인천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 도화동 주민 센터로 시청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는 쉽지 않았다. 수 백 명이 대기하고 있는 터라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임대아파트를 포기하고 복지 그룹홈에서 나와 인천에서 살 수 없겠다 하며 인천을 떠나 동두천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 이곳에 월세방을 얻어 완전한 독립과 재할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동두천 상패동에서 교회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들을 다니면서 신고식을 하며 열심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알리고 돌아 다녔다. 추운 겨울 눈보라 치는 날에도 장대같이 소나기가 오는 날에도 열심히 자립의 꿈을 키워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또한 적은 평수지만 좋은 임대 아파트도 입주했고 아주 활기찬 인생을 이어오고 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부부가 중증장애인이지만, 비록 모든 활동에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부가 일심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동안 욕심 없이 뜻 있고 멋진 밑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끝〉

칼럼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 조운경

“불륜에 쌍심지를 켜는 그대에게”

가수 겸 화가 조영남(62)이 첫사랑부터 두번의 결혼과 이혼까지 평생의 걸친 자신의 사랑편력을 그대로 드러낸 책 ‘어느날 사랑이’ (한길사)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맞아죽을 각오로 쓴 100년만의 친일선언’ 출간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조영남은 이 책을 통해 첫사랑과의 섹스와 결혼 생활 중 외도 등 스타로서는 꺼내기 어려운 사생활까지 파격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조영남은 첫번째 부인 윤여정과 이혼한 이유는 자신의 바람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출처 야후 포스트-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이때는 곁에 누군가 함께 있어서 외롭고 춥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진다. 각종 공연과 거리의 분위기들이 연인,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화려한 이벤트로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추긴다. 미웠던 사랑고백도 하고 정성스런 선물도 준비하고 키스, 화끈한 하룻밤 등에 들뜬다.

특히 언론에서 이때 사랑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척 암울한 인생인 것처럼 몰아가고 애인 하나 없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쓸쓸히 맞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혀를 차는 것들 때문에 더욱 조

바심을 갖게 한다. 물론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면 행복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따뜻한 겨울이 되겠지만.

무슨 날을 위해, 그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을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필요에 의해, 나이가 차서, 부모님이 원해서, 또는 남들이 하나까 등의 이유로 사랑과 성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뭔가 해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끌림이 있는 만남이라야 무슨 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잡힌 보여주기 위한 연애가 아닌 정말로 내가 만족하는 사랑과 성과 결혼을 이룰 수 있다. 본능에 따

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과 성과 결혼이 서로에게 행복한 것이다.

바람을 피운다는 것, 불륜에 대한 사회시선과 낙인 또한 사람의 본능을 억압하고 있다. 이는 한 명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랑해야만 진실

하고 고귀한 사랑이라고 강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조건이 맞고 필요에 의해, 나이가 차서, 부모님이 원해서, 또는 남들이 하나까 등의 이유, 그리고 한때의 실수와 판단의 오류로 연애와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못견디게 좋는데 늦게 만났다는 것만으로 더럽다거나 간통이라는 죄를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감정은 죄로, 불륜으로 다뤄져서도 다룰 수도 없는 개인의 행복할 권리이다.

물론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남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

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랑과 성과 결혼 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규칙이다. 하지만 단지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싫은 사람과 연애, 성과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건 서로에게 불행일 것이다.

지금의 도덕과 사회질서, 그리고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조건이 맞고 필요에 의해, 나이가 차서, 부모님이 원해서, 또는 남들이 하나까 등의 이유로 사랑과 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장애인이어서 안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운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드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운경 성 칼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운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독자투고

이주희 (김천과학대학 사회복지과 2학년,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실습생)

“내 삶의 스케치”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간디의 말씀은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나에겐 큰 감동 그 자체였다.

순수한 봉사의 정신으로 성실한 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므로 학교생활과 사회복지실습은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번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그동안 복지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배운 업무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쌓인 경험

이 나에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실습기관으로 선택한 이유도 내가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던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선택하게 되었는데 나의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번 실습을 마치며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나에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용 고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며, 고객과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보낸 시간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실습을 통해 내 자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 또한 더 중요함을 느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팀장님께서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걸 내어주시던 헌신

적인 모습을 볼 때에 나도 용기가 생겨서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4주 동안 현장실습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매일 아침 출근길에 주문을 걸었다. 지금의 시간과 배움들이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진주같이 빛날 거라고 확신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로 버스로 출근하기가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영롱한 진주도 처음에는 큰 상처 덩어리였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래알을 밖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조개는 자신의 체액으로 모래알을 감싸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오랜 시간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듯이 상처를 감싸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다짐했다.

4주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걸 가르쳐주신 복지관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기부천사 김장훈, ‘10억’ 통 큰 기부 화제 12년간 총 110여억원...“내가 받은 사랑 돌려주는 것”

가수 김장훈이 연말을 맞아 사회 각계에 10억 원을 기부한다고 소속사 공연세상이 지난 14일(화) 밝혔다. 김장훈은 장애아동전문병원 건립기금에 2억원, 자신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반크와 카이스트에 각각 2억원을 기부한다.

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에 고지도와 역사적자료 구입금으로 1억원, 해외 유력지에 한국 광고를 게재해 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게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비로 1억원을 쾌척한다. 이와 함께 경희대 고지도박물관에도 1억원, 인천 한길안과병원의 소외계층 무료개안수술프로젝트지

원에도 1억원을 기탁한다.

소속사는 “김장훈씨가 광고모델 재계약금과 각종 행사출연비를 모아 기부한다”고 전했다. 김장훈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베푼 온정에 어떤 재단의 잘못과 비리가 찬물을 끼얹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하지만 기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지 재단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기부액수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장훈 씨는 지난 16일(목)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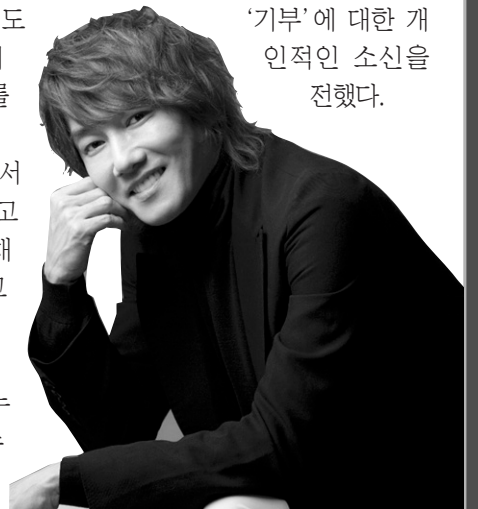
김장훈은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을 갔다와서 별 두려움 없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구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삶이 보너스 같다”라고 운을 뗀 뒤 “그래도 한가지만큼은 굳건히 자리 잡은 게 신기할 따름이며,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릇에 비해 너무 과한 사랑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는 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기부를 알렸다. ‘너무 티를 낸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등 일각의 충고도 생각

한다”면서도 “어쩌면 제 자신에게 먼저 캠페인을 하고 싶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가 터지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던 곳의 재단 비리를 보았다. 죄 없는 어린 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저를 보았고, 아이들의 문제가 제게 제게 너무 벅차서 순간이라도 도망치고 싶던 저를 독려하고 채찍질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부를 할 때 안하던 누군가가 물들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고 본다. 연예인들의 경우 무조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 듯 하다”면서 “조금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주변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감수하고 알리는 게 더 인격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는 ‘기부’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전했다.



최근 이슈가 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에도 불구하고 10억의 기부금을 쾌척해 귀감이 되고 있는 가수 김장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회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0년 10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경희, 김구환, 김성우, 김유경, 김진호, 김태우, 김환경, 남용원, 마사회, 민박상조희, 박소연, 박정현, 박종형,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송현, 양순연, 영희문화재단, 유유미, 유재복, 윤채환, 이강구, 이민수, 이상돈, 이수현, 이윤상, 이은정, 이지수, 이효민, 임채중, 정은연, 조점제,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제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응
모
요
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
트

2011년은 ○○년, 토끼띠의 해

★1				2		3
4	5				6	
	7	8		9		
				★		
	10					



지난호 정답

*1 준			2 수			
공		3 소	비	4 자		
*5 식	6 중	독		7 결	의	8 문
	절					방
	9 모	11 순			*11 김	구
		레				
		12 자	전	거		

| 가로열쇠 |

1. 일본에서 운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최초는 1964년 10월에 개통했으며, 1987년 국철의 민영화와 함께 일본여객철도(JR) 소속이 되었다.
2.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시작하여 전라남도를 거쳐 경상남도 하동을 지나 남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4.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6.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
7. 수명이나 운명 따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9. 소리를 질러 응원함. 하는 일이 잘되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줌.
10. 육군의 주력을 이루는 전투 병과. 소총(小銃)을 주 무기로 삼는다.

| 세로열쇠 |

1. 사학자·독립운동가·언론인(1880~1936). 호는 단재(丹齋). 성균관 박사를 거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에 강직한 논설을 실어 독립 정신을 북돋우고, 국권 강탈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과 국사 연구에 힘쓰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저서에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朝鮮史研究草)》 따위가 있다.
3. 무엇에 놀리거나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증상.
5. <법률> 외국에 주재하며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무에 종사하는 관직.
6.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8.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9.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봄. 또는 그런 일. 주로 설, 추석, 한식에 한다.

11월호 정답

김준식

당첨자

김인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최연자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강호영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틀린크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아인美
Natural Beauty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2010년 한 해 동안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대한민국 480만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 어떤 순간에도 협회를 믿고 지지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던져 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 격려, 질책 그리고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다가오는 2011년, 회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 정 록

